

선정 소감

전위의 폐기와 몽홀의 자서전

성기완

안녕하세요, 성기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문학실험실 분들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문학 스승이자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했던 김현 선생님 성함으로 제정된 문학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런 만큼 저의 부족함이 송구스럽고, 그러면서도 감격스럽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시인으로 이런 큰 상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저 바깥에, 어딘가의 뒷전에서 별소리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는 난데없는 일이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실은 이런 수상 소감을 써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두서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면 바로 그 탓이라 여기고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저에게 이 상이 주어진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 제 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 한답시고 문단과는 거리를 둔 채 주변을 빙빙 돌면서 딱히 시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시인다운 비장함이나 절실함을 드러내기는커녕 통통한 몸매에 그저 허허 웃으며 별로 진지하지도 않은 농담이나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재는 뭐하는 애야? 이런 소리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 상은 뭘까, 내 나이 김현 선생님 돌아가신 해 잡수셨던 마흔아홉(우리 나이로)에,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이 상이 왜 나한테 주어지는 걸까. 이 상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아야 한다면 우선 그럴 만한 이유를 제 안에서 발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은, 제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어딘가에 있어서가 아니라 있지 않아서 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험적으로 상을 주시다니, 과연 문학실험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찾으셔도 저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사코 그런 표적이 되는 자리에는 없으려고 노력했

습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시 역시, 안 써졌고, 못 썼습니다. 그런 시 바깥에 있는 시를 쓰는 것만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시인다운 삶을 살되 시인 같아 보이는 건 싫었습니다. 저의 외모 또한 시인다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재는 은근히 되게 잘난 척해. 예,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이쯤에서 또 잘난 척이나 하나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한국의 문학비평가들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작품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저의, 그리고 그분들의 존재 방식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 등 뒤에 있습니다. 뒤의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향해 있는 각장르 내부의 시선이 갖는 속성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존 문단의 방식에 의하면 비평 가능성 바깥에 있습니다. 저는 시였다가 음악이었다가 실험이었다가 팝이었다가 아프로아시안Afro-Asian입니다. 뒤의 존재 방식은 무엇보다도 소리의 그것입니다, 소리는 당신의 앞에서조차 뒤를 들려줍니다. 앞뒤의 지연 delay을 통해 둘을 섞어버립니다. 청각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앞-뒤의 경계선 언저리에서 소리와 더불어 모호하게 진동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 밖으로 먼저나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음악이 되고, 보들레르의 신비로운 표현처럼 ‘음악이 하늘에 구멍을 뚫습니다’. 시를 쓰면서 제겐 왠지 자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의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스스로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보이는 것들의 배후이자 그 일부입니다. 저는 이 존재론적 역설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기왕 거창하게 나간 김에 조금 더 가볼까요? 조용필의 노래 속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나’를 원하던 21세기는 어떤 세기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미래에, 또는 미래의 미래에(21세기 자체가 미래이므로 미래의 미래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20세기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뒤의 시대입니다. 이런데도 계속 전위라는 말을 쓰시겠습니까?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는 죽었습니다. 앞의 시각적 지향점에 집착하는 순간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맨 앞 열에 자신을 세우는 순간 형편없는 구닥다리가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전위를 폐기합니다. 저의 예술로 그 폐기를 실행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예술적 모험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김현문학패를 시상하면서 동시에 문학실험실의출범을 축하해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더불어 문학실험실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순간, 문학패의 징표로 모셔온 김현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분의 존재감은 안 계실수록 더 커지네요. 모쪼록 이 상이 생활 세계의 바깥에, 앞을 지향하는 세상의 맨 뒷전에, 먼 티베트의 고원에, 아프리카의 뜨거운 지평선 위에, 몽홀한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진정한 시인들에게, 생활 시스템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버그로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창조자들에게 위태로운 불씨를 살리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과 개별성이라는 근대 서구의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익명의 모듈 module로 서로의 배후에서 플러그인 됩시다. 그것은 언어의 행동 양식이라기보다는 소리의 그것이죠. 모든 떨림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의 물질 자체, 바람 같은 것, 시의 근본 지향은 거기입니다. 모두들 전체로서의 시의 일부로 살면서, 살다가 죽으면서, 죽은 후에도 계속, 무의식 안에서 물질 전체, 생명 전체,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우주 전체의 자서전을 공동 집필합시다.

저에게 시인의 가업을 물려주고 시적인 실험의 지도를 건네주신 아버지의 영전에, 남겨지신 어머니께, 시인의 아내, 시인의 딸이라는 고역을 묵묵히 견뎌주고 있는 저희 집 두 여인에게,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두 마리 암캐와 세 마리 암코양이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끝으로 이인성 선생님이 이끄시는 문학실험실이 충격적인 실험을 거듭하여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데다가 눈까지 멀어가는 한국 문단을 아주 박살 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칩니다.